



## 호미로 막아라

어느 앱이 있다. 유사한 형태의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사업모델의 적법성 여부를 물어오길래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위법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입에서 해당 앱이 회자되기 시작하니 누적가입자 수가 3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가입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도 많고 일본으로도 진출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의료법을 우회하였는지 궁금하던 차에 며칠 전 해당 앱을 통해 환자를 알선받은 의사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라고 한다. 국회에서도 해당 앱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비슷한 시기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스타트업 동아리 회장의 소개로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창업을 한 후 시제품까지 만들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자문을 구하거나 검토를 받았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다. 대체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법률전문가를 찾아온다. 소장을 받은 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심지어는 재판 날짜가 잡힌 후. 하지만 진정한 법률전문가의 영역은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있고 사전에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반드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신약개발의 경우도 유사하다. 개발된 신약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적응증으로 얼마의 약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개발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번의 상담에서 목표한 약가를 받을 수 없는 데도 수십억의 개발비를 들여 신약을 개발한 사례를 들 수 있었다.

법률을 포함한 전문가 조언은 사전에 받는 것이 최선이며 가장 적은 비용이 든다. 위 앱의 경우에도 매우 정교한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사업 모델을 정해야 했었다. 이미 회사가 성장하여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진 마당에 대표가 형사처벌되면 어찌란 말인가. 문제가 된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2% 미만에 불과하다는 항변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서비스 외에도 현행 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 LK PARTNERS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보건의료분야는 규제가 심한 영역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지금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사업모델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인원이 적다, 자금이 적다는 이유로 대충 하다가는 잘 될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에 해당하는 시제품을 만들어 온 카이스트 학생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kklee@lkpartner.co.kr](mailto:kklee@lkpartner.co.kr)